

1990년대 후반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세계화 현상
- 파리 · 런던 · 밀라노 · 뉴욕 · 도쿄 · 서울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 서 연 · 박 길 순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Globalization Shown at Fashion Collections
in the Second Half of 1990's
- Focused on Paris · London · Milan · New York · Tokyo · Seoul -

Seo-Youn Kim and Kil-Soon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pplying the globalization theory to the fashion phenomena which regarded the phenomena of the contemporary culture as globalization, this study had an object of looking into the globalization tendency of the fashion phenomena shown Paris, London, Milano, New York, Tokyo, and Seoul collections from 1995 to 1999.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t was the blend of romanticism that was the most common trend shown at the six world collections.
2. The works appeared at the six world collections showed the regional peculiarity und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r the sociocultural influence each city had.
3. Another character appeared at the six city collections was the appearance of multi-ethnic style mixed various regional motive at a work.

After all, the world fashion phenomena in the second half of 1990's could be condensed into globalization appeared homogenization, regionalization, and hybridization at the same time.

Key words: culture, globalization, homogenization, regionalization, hybridization.

I. 서 론

20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하여 현대 사회의 특성을 대변하게 된 세계화의 담론은 전 세계가 하나의 원리, 즉 서구 사회의 상업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이로 인해 형성된 유사한 문화 속에서 동일화되어간다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는 서구화를 곧 세계화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화란 각 지역의 정체성이 강조될 때 이뤄질 수 있다는 중립적인 견해로 변

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시각은 패션현상에도 적용되어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의 패션현상이 서구식의 복형태로 동일화되었으며, 이는 각종 매체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패션현상들은 세계의 공통된 트렌드 안에서 각 지역의 전통성과 독자성이 유지된 채 다른 지역의 패션요소들이 혼합되고 있다. 즉, 세계 곳곳의 패션을 비롯한 문화현상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유사한 형태로 변

화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나 패션현상들과의 혼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 패션의 경향에 대한 종전의 연구들은 앞서 서술한 패션현상의 상호공존성과 독자성을 외면한 채 서구 유럽 패션으로의 동일화 차원만을 분석하거나, 시·공간의 융합으로 대표될 수 있는 포스트모던 시각에서의 혼성화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뿐, 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세계화 차원에서의 패션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새로운 시각에서 재론되고 있는 세계화의 개념과 현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현대 패션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문화현상을 세계화로 보는 세계화론을 현대 패션현상에 적용하여, 1990년대 후반의 파리·런던·밀라노·뉴욕·도쿄·서울의 6대 도시에서 발표된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pret-a-porter collection) 작품들간의 세계화 현상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현대 패션의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문헌적 고찰에 의하며,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90년대 후반의 컬렉션 전문서적과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6개 도시의 컬렉션 사진 등에서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널리 구독되고 있는 「Collection」, 「Collezioni」, 「Gap」 등의 컬렉션 전문 서적과 「Fashion UK」, 「7th on 6th online」, 「Firstview」, 「Tokyo Fashion」 등의 컬렉션 공식 사이트를 비롯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리·런던·밀라노·뉴욕·도쿄의 컬렉션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국의 SFAA 컬렉션 자료는 「한국판 Elle」와 「한국판 Bazaar」의 특집 자료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진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나라마다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는 세계 패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며, 세계 패션 현상에 대한 세분화된 이해는 한국의 패션산업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의 패션 산업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세계화(globalization)의 특성

1959년 「The Economist」에서 한 줄 언급되면서 선을 보이기 시작한 오늘날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미는 1961년 웹스터 사전에서 'globalism'과 'globalization'이 사전적으로 개념 규정된 이후 불과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현대사회의 모습으로 일상화되었다¹⁾.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대비되는 세계화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국제화가 국가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양적교류의 확대만이 아닌 사회생활의 새로운 재구성을 통해 세계사회라는 독자적인 차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²⁾.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세계화 이론들이 갖는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분석단위의 조정이다. 즉, 관심의 초점이 사회나 국가에서 세계사회로 옮겨진 것이다. 둘째는 보편 대 특수, Gesellschaft 대 Gemeinschaft, 공적 영역 대 사적 영역과 같은 이분법적 구획화의 거부이다. 이제까지 복잡한 사회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던 유형화(typology)는 변화의 메카니즘을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항목간의 철저한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응축(time-space compression)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이 적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호배타적이라고 보여졌던 현상들이 실지로는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는 지방화(localization)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즉, 세계화란 여러 지역들의 통합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그 안의 민족적,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생명력은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세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경제통합, 문화의 전지구적 동일화, 정치영역의 전지구적 통합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1) 박길성의 외,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사회비평사), 1996, p.181.

2)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사회학」, (서울:한울아카데미), 1998, p.362.

다. 세계화의 의미가 지구적인 상호의존의 증대와 구조, 문화, 행위의 세계적 상호연결 증대로 규정되고 있으나 이것의 내용을 동형화(isomorphism), 표준화(standardization)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다차원적 동시공존인 것이다. 다섯째, 세계화를 이루는 행위자(actor)는 다양하다. 즉, 국가가 유일하고도 강력한 행위자였던 전 시대와는 달리 자본, 국제조직, 민간조직,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 등이 모두 주체가 되고 있다³⁾.

한편, 세계화가 가장 먼저 가시화되어 나타난 경제영역에서의 세계화란, 국가가 아닌 자본 그 자체를 기본단위로 한 세계경제의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이 세계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됨을 의미한다⁴⁾. 그러나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일한 마케팅 전략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think global, act local"이라는 소니(Sony)사의 glocalization 전략은 경제의 세계화를 겨냥한 일본인들의 행동지침이 되었고, 나아가 전세계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⁵⁾.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더욱 활성화된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TV 프로그램, 책, 음악, 음식, 패션과 같은 상품에 담긴 내용까지를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곧바로 문화의 세계화로 이어졌다.

2. 문화의 세계화

1990년의 「Theory, Culture, and Society」에서 글로벌 문화를 특집으로 다룬 후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는데⁶⁾, 이 용어가 등장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세계 문화의 동일화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P. Berger는 세계화란 독일의 석탄회사부터 일

본의 10대에 이르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글로벌 문화(global culture)란 문화적 동일화, 서구적 가치관으로의 동일화, 미국 대중문화로의 동일화,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⁷⁾.

이에 반해, J. Pieterse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란 어떤 특정 지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세계에 확대 재생산되기만 하는 일방적인 동질화의 과정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지역의 문화가 서로 소통하고 혼재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혼성화(hybridization)의 과정이라고 하였다⁸⁾. 또한 J. Arnason은 글로벌 문화가 형성될수록 세계사회는 다원화되며 세계적 공존으로서의 다양성이 심화된다고 하였으며⁹⁾, R. Robertson은 문화적 세계화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각기 상이한 영향력을 지니며, 세계화된 문화적 기술과 상품의 유통이 점점 더 지역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glocalisation' 과정이라고 하였다¹⁰⁾. K.C. Boey도 호주의 학자들이 글로벌 문화의 혼성화를 'glocalisation'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성과 지역성의 혼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였다¹¹⁾. 이들은 문화의 세계화를 전 세계의 서구화로 이해했던 P. Berger와는 달리 각각의 문화가 지역적인 정체성을 유지한 채 서로 혼성화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소외되어 왔던 후진문화에조차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문화 역시 존재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인류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다¹²⁾.

요컨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의 세계화는 동일화·지역화·혼성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문화만이 지배

3)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서울:사회비평사), 1996, pp.58-72.

4) M. Humbert,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Europe's Firms and Industries」, (Printer Pub, 1993), p.4.

5) 박길성, 앞의 책, p.320.

6) 박길성, 앞의 책, p.39.

7) P. Berger, "Four faces of global culture", *The National Interest*, No.49, (1997), pp.23-31.

8) J. Pieterse, "Globalization as Hybridization", *International Society*, 9(2), (1984), p.177.

9) J. Arnason,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in M. Featherstone,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Sage, (1990), p.140.

10) R. Robertson, "Globalisation or Glocalis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1(1), (1994), p.5.

11) K. C. Boey, "Of 'globalization' and the east west power game", *New Straits Times*, May 26, (1999), p.14.

12) 박길성, 앞의 책, pp.92-93.

문화로 정의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 6대 도시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세계화 현상을 고찰하여 보고, 이를 통해 현대 패션의 현상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III. 사회적 배경

1990년대 후반은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는 역사적 시기를 앞두고 지나간 시대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 천년을 준비하며 불안과 기대를 경험한 혼란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전 세계의 사회, 문화, 경제, 예술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의 패션현상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적인 경기 침체

1990년대 초반의 경제 호황에 일조하였던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이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IMF 관리체제라는 금융사태로 이어져¹³⁾,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1997년 초반부터 시작된 국제 원유가의 급등과 급락의 반복 역시 국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96년의 갑작스런 급등으로 시작된 원유가는 그 후 몇 년 동안 등락을 반복하며 세계 경제를 불안으로 몰고 가며¹⁴⁾, 세계 패션계를 무채색 일색으로 이끌었다.

2. 뉴미디어의 확대

뉴미디어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기능해 오던 매체들이 디지털화하여 복합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며, 기존의 대중매체가 일방적, 집중적, 독점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것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양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매체를 뜻한다. 여기에 속하는 매체로는 케이블 TV, 직접 위성방송, HDTV, 근거리 정보 통신망(LAN)을 이용한 인터넷 등을 들

수 있는데¹⁵⁾, 199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뉴미디어가 널리 보급되어 전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시장과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전 세계인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문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동형화하는 한편,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컴퓨터의 밀레니엄 버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혼란들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여러 나라의 스타일이 동시에 혼합되는 다민족적 에스닉룩이 등장하여 보편화하게 되었고, 밀레니엄 버그를 비롯한 세기말적 불안은 간결한 선과 무채색의 유행을 지속시켰다.

3. 동양 사상의 유행

위에서 살펴 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혼란과 더불어 물질문명의 지배를 받았던 20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물질보다는 정신을 중시하고 기계문명보다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동양의 철학사상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라즈니쉬 같은 인도 명상 철학자들의 서적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조지 윈스턴의 'December'와 기타로의 'Silk Road' 같은 이지 리스닝(easy listening) 음악, '사랑과 영혼', '티벳에서의 7년'과 같은 뉴 에이지(new ages) 영화들을 유행시키며 다른 문화적 영역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인간의 기(氣)를 조절하여 수련하는 인도의 요가와 중국의 우슈를 위한 각종 단체가 세계 곳곳에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간결한 선과 무채색, 느슨하고 헐렁한 실루엣의 쉐스타일이 유행하였다.

4.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

155년 동안 영국의 영토로 있으면서 동서양의 교두보와 아시아의 금융센터로 자리하였던 홍콩이 199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공산국가인 중국으로 반환되었는데¹⁶⁾, 이것이 초래하게 될지 모르는 정치적,

13) "되돌아본 20세기 한국경제-IMF와 한국경제", 「조선일보」, 1999년 12월 27일.

14) "세계 석유과동 위기", 「경향신문」, 1999년 11월 24일.

15) 김우룡, 「뉴미디어 개론」, 서울:나남, 1991, p.5.

16) "홍콩 차이나 시대 개막/영, 중국에 주권 반환", 「조선일보」, 1997년 7월 1일.

경제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어 나타났다. 실제로, 홍콩 중국 반환 이후의 사태를 장담할 수 없었던 많은 외국 기업들이 그들의 자본을 회수하면서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더욱 곤란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까지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세계인의 이목을 홍콩과 중국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여 한동안 이들을 주제로 한 영화, 음악, 패션 등이 유행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패션에서는 레드 컬러와 옹무늬, 차이니즈 칼라, 옆선의 긴 슬릿, 매듭단추 등을 이용한 차니즈 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다.

IV. 6대 컬렉션에 나타난 세계화 현상

앞에서 살펴 본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난 1990년대 후반 세계 6대 컬렉션의 패션현상을 이 시기의 대표적 문화현상인 세계화 현상에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패션현상의 동일화

1) 1995년의 패션현상

1990년대 전반을 대표하던 미니멀리즘이 1995년에는 몸매를 강조하고 과장하는 장식적인 경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 해의 세계 컬렉션에는 전체적으로 로맨틱시즘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몸에 꼭 붙는 상·하의를 통해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엉덩이에 이르는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글래머룩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 외에 스커트의 라인도 주로 하늘거리는 A라인이었으며 소재는 비닐이나 가죽뿐 아니라 니트까지도 메탈릭 소재를 사용할 만큼 광택있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고, 색상은 화려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비비드계열의 배합이 주를 이루었다. 신발 역시 1950년대 스타일을 재현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편 힐이 가장 많았다.

2) 1996년의 패션현상

1996년에는 이전 해에 잠시 등장하였던 로맨틱시즘의 경향이 다시 미니멀리즘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때의 미니멀리즘은 1990년대 전반의 짧고 가는 라인과는 다른 길고 가는 라인이었다.



<그림 1> 슬립드레스-G. Versace
「Firstview」, '96 F/W, Milano.

다시 말해, 이 해에 발표된 작품들은 축소된 사이즈와 배제된 장식, 간결한 라인이라는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단추와 포켓을 포함한 모든 디테일의 생략은 이 시기에 돋보인 스포티브룩의 부상과 함께 대부분의 아이템에 지퍼가 사용되도록 만들었다. 스타일에 있어서는 간결한 스포티브룩과 밀리터리룩, 에스닉룩이 대표적이었으며, 아이템은 슬립 드레스와 스틱수트, 스커트가 공통으로 등장하였는데, 이 때 스커트는 무릎길이의 스트레이트 라인이 주가 되었다. 또한 앞을 겨우 여밀 만큼 타이트한 상의들이 등장하면서 신축성 소재가 부상하였고, 새틴이나 산탄과 같이 자연스런 광택이 나는 천연소재들도 많이 사용되었다. 신발은 1995년의 편 힐 대신 두껍고 낮은 굽이 많아진 것도 컬렉션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림 1>은 로맨틱시즘의 특성인 화려한 광택소재와 레이스 장식에 미니멀리즘의 특성인 짧은 길이와 간단한 구성의 조화로 이루어진 슬립드레스이다.

3) 1997년의 패션현상

1997년의 세계 패션 현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은 중국 본토로의 홍콩반환이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나아가 공산국가와 자유국가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홍콩이 공산국가인 중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세계의 관심이 홍콩으로 집중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풍의 에스닉룩이 모든 컬렉션에 공통으로 등장하였는데, 길고 가는 라인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가미된 붉은 색 직물과 금사의 자수, 꽃 문양, 매듭단추 등은 핸드백도 들지 않고 단추조차 달지 않던 미니멀리즘에 로맨틱시즘을 혼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해에 등장한 대표적인 아이템은 이전 해의 스틱수트와 새로 등장한 파워수트였으며, 색상은 블랙을 기본으로 차이나이즈룩의 레드가 많이 사용되었고, 소재는 광택소재와 비치는 소재, 신축성 소재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신발은 새롭게 등장한 파워수트의 영향으로 편힐이 다시 주를 이루었다.



<그림 2> 레이스 드레스-A. McQueen
『Collection』, '99 S/S, London.

4) 1998년의 패션현상

1998년의 패션현상을 특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스타일은 파리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어오던 소프트 아방가르드룩이다. 유럽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여러 시즌 전부터 소개되어진 이 스타일은 일본 전통복식의 착장방식과 색채를 응용하여 만든 무정형(無定形)의복으로, 부드러운 무채색이나 파스텔의 천으로 만들어진 드레이프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 세계의 지역을 모티브로 삼은 에스닉룩도 6개 도시 컬렉션에 공통으로 등장하여 미니멀리즘은 최소화하는 반면, 장식적인 디테일과 트리밍이 첨가된 로맨틱시즘은 강화되는 경향을 띄었다. 아이템에 있어서는 미니멀리즘의 시기에 팬츠에 밀려 주춤해 있던 스커트가 다양한 길이와 실루엣으로 나타난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으며, 색상은 회색이 주가 된 무채색이, 소재는 가볍고 부드러운 천연섬유와 텐셀이, 신발은 편 힐과 앵글부츠가 대표적이었다.

5) 1999년의 패션현상

20세기의 마지막 해였던 1999년의 세계 패션은 다문화·다민족적인 에스닉룩으로 지나간 시대들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한편, 크고 풍성한 볼륨감, 풍부한 소재, 화려한 색상의 사용으로 다가오는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였다. 또한 여유있는 실루엣과 천연 소재를 사용한 내추럴리즘, 실용적인 스포츠웨어를 부드러운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한 스

포티브룩도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하기 시작하였다. 아이템에 있어서는 이전 해에 특징적이었던 스커트가 좀 더 볼륨감 있게 표현되었으며(그림 2), 스포츠웨어의 부각과 함께 지퍼와 드로우스트링을 사용한 아이템들이 많았다. 색상은 흰색이, 소재는 부드러운 천연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신발은 굽이 없고 편안한 슬리퍼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의 세계 패션현상은 간단한 라인과 슬림한 실루엣, 작은 듯한 사이즈, 무채색으로 요약되는 미니멀리즘의 경향에 많아진 장식, 색상의 부활, 다양한 소재의 공존으로 요약되는 로맨틱시즘 경향의 혼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2. 패션현상의 지역화

1990년대 후반에 발표된 세계 6대 컬렉션이 공통된 트렌드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컬렉션의 내용은 그것이 발표된 지역에 따라, 또는 그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각 도시별, 시즌별로 나타난 지역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별로 나타난 지역화 현상

본 연구에서 살펴본 6개 도시의 컬렉션은 모두 각자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6개 컬렉션 모두가 동일한 트렌드를 보인



<그림 3> 파리 컬렉션-C. Lacroix
『Collection』, '95 F/W, Paris.



<그림 4> 런던 컬렉션-A. McQueen
『Fashion UK』, '98 F/W, London.

연구 기간동안의 파리 컬렉션에서는 글래머룩과 롤리타룩, 에스닉룩, 스포티브룩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파리에서 활동하는 일본 디자이너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스트리트스타일과 소프트 아방가르드룩도 자주 등장하였고, 크리스찬 디오르와 존 갈리아노, 장 폴 고티에 등의 디자이너들이 주축이 된 다민족적 에스닉룩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아이템은 짧은 재킷과 스커트, 장식적인 드레스들이 많았으며, 색상은 레드를 비롯한 비비드계열이 주로 이용되는 등, 전체적인 스타일들이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다. 대표적 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디오르와 크리스찬 라코르와, 장 폴 고티에 역시 오프 꾸뛰르 취향의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였다(그림 3).

런던 컬렉션에서도 글래머룩과 에스닉룩, 스포티브룩이 주로 나타났는데, 런던 스트리트스타일을 응용한 알렉산더 맥퀸과 오웬 가스터의 핑크룩, 한동안 파리 컬렉션에서 활동하던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비대칭 룩은 런던 컬렉션만이 지니는 대표적인 스타일이었다. 주요 아이템은 무릎길이 스커트와 힙허거 팬츠, 어깨를 강조한 재킷, 비대칭 드레스 등이었으며 색상은 그로테스크한 핑크룩에 어울리는 블랙이 주로 사용되었다(그림 4).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글래머룩과 스포티브룩, 에스닉룩이 많이 나타났는데, 같은 글래머룩이라 할지라도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라 쉬크한 느낌의 정장이 많았고, 1996년에는 다른 컬렉션의 스틱수트와 달리 파워수트가 재등장하기도 하

였다. 대표적인 아이템은 스틱수트와 파워수트, 깊은 슬릿의 드레스 등이며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 키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이 컬렉션의 특징이었다(그림 5).

뉴욕 컬렉션에서는 스포티브룩과 겐스타일, 에스닉룩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직물을 적게 사용하고 남성적이었던 이전의 이지 웨어(easy wear)와 달리 풍부한 직물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캐주얼 슈크’, 동양의 선(禪)사상을 바탕으로 무채색의 헐렁하고 여유 있는 형태를 추구한 겐스타일이 두드러져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를 이루었다. 주



<그림 5> 밀라노 컬렉션-G. Armani
『Firstview』, '97 S/S, Milano.



<그림 6> 뉴욕 컬렉션-J. Bartlett
「7th on 6th online」, '99 S/S, New York.

로 등장한 아이템은 편안하고 심플한 라인의 정장과, 지퍼와 후드가 부착된 스포티브 웨어였으며, 색상은 캐주얼 쉬크와 켈스타일 모두에서 무채색이 주로 사용되었다(그림 6).

도쿄 컬렉션에서는 도쿄 스트리트룩과 밀리터리 룩, 야방가드룩, 에스닉룩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많은 작품에서 일본 전통복식의 모티브를 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세이 미야케, 레이 가와쿠보, 준야 와타나베 등과 같이 유럽과 일본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은 일본 전통복식의 재단방법, 조형상의 특성, 염색 기법, 색상 등 간접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반해, 게이타 마루야마, 미찌코 이즈미, 준코 고시노 등과 같이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은 일본의 전통 꽃무늬, 오비, 기모노, 하오리 등을 직접 작품에 도입하고 있었다. 도쿄 컬렉션에 등장한 주요 아이템은 테일러드 수트와 미니스커트, 힐헛거와 와이드팬츠 등이었으며,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위주의 무채색이 사용되었다(그림 7).

마지막으로, 서울의 SFAA 컬렉션에서는 글래머 룩과 에스닉룩, 그리고 한국의 전통복식을 응용한 작품이 가장 많았는데, 이 때 설운형, 박향차, 김동순, 진태옥 등의 디자이너들은 당의, 조각보, 노리개, 전통문양 등과 같은 모티브를 작품에 직접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였다. 또한 이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각 시즌의 대표적인 유행스타일과 접목된 형태로



<그림 7> 도쿄 컬렉션-T. Chisato
「Gap」, '95 F/W, Tokyo.

나타난 것도 전통복식을 현대복식에 접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도쿄 컬렉션과의 차이점이었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테일러드 수트와 스틱수트, 비대칭 드레스, 야방가드 스타일의 무정형(無定形) 의복 등이 있었고, 색상은 회색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이 대체로 많았다(그림 8).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1990년대 후반의 파리 컬렉션에는 볼륨있고 화려한 스타일이 주로 나타났으며, 런던 컬렉션에는 핑크 스타일의 과격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패션들이 많이 나타났고, 밀라노 컬렉션에는 쉬크한



<그림 8> SFAA 컬렉션-진태옥
「한국판 Elle」, 1995년 1월, Seoul.

이미지의 정장과 선명한 색상의 배합을 통한 캐주얼이 많이 등장하였다. 한편, 뉴욕 컬렉션에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한 작품들이 대다수였고, 도쿄 컬렉션에는 일본 전통복식과 도쿄 스트리트 스타일을 응용한 작품들이, 서울의 SFAA 컬렉션에는 한국 전통복식을 응용한 정장 스타일이 주를 이루는 등, 각 도시별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2) 시즌별로 나타난 지역화 현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개 도시의 컬렉션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예를 들면, 로맨틱시즘이 강조되던 1995년 봄·여름 시즌의 에로틱한 경향이 파리와 밀라노에서는 어깨와 배꼽 노출로 표현된 반면 런던에서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가죽에 나비를 그려 넣는 핑크룩을 통해 강조되었다. 또한, 그 해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글래머룩 역시 파리에서는 롤리타룩에, 런던에서는 핑크룩에, 밀라노에서는 쉬크룩에, 뉴욕에서는 에스닉룩에, 도쿄에서는 오리엔탈룩에, 서울에서는 사이버룩에 접목되어 각기 다른 분위기로 연출되었다. 1996년에 밀리터리룩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였을 때 파리의 밀리터리룩은 금장식과 개터를 이용하여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표현된 반면, 런던의 밀리터리룩은 남성적이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역시 1996년에 6개 도시 모두에서 등장하였던 스틱수트의 경우에도 파리에서는 슬림 재킷을 롱스커트와 매치시킨 반면, 런던에서는 9부 길이의 펜슬팬츠와 매치시켰으며, 밀라노에서는 어깨가 강조된 파워재킷을 9부의 슬림팬츠와 매치시키는 등 도시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다. 또한 1997년부터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도쿄의 5개 컬렉션에 공통으로 등장하게 된 파워수트가 서울에서는 그 후로도 여러 시즌동안 등장하지 않았으며, 1997년에는 같은 에스닉룩이라 하더라도 파리에서는 북아프리카를, 런던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뉴욕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도쿄에서는 인도를 모티브로 하여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글래머룩, 밀리터리룩, 에스닉룩이라는

큰 트렌드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도시가 지니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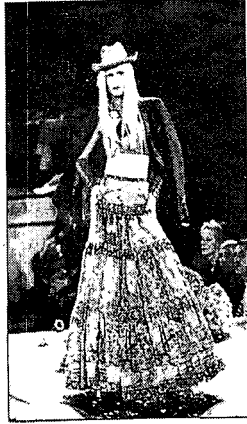
3. 패션현상의 혼성화

T. Polhemus는 1990년대 패션현상의 특징이 'the gathering of the tribes'와 'the supermarket of style'이라고 하였다. 즉, 1970년대에 모즈, 스킨헤드, 펑크, 그리고 자마이카 혹은 뮤지션 루드보이의 스타일이 혼합된 투톤 스타일이 등장한 이후, 세계의 패션은 여러 종족이 함께 모인 것과 같은, 그리고 마치 스타일을 모아 놓은 슈퍼마켓에 온 것 같은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패션의 혼성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스타일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스타일로 요약할 수 있다.

1) 다민족적 에스닉룩

199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두드러지는 패션현상 중의 하나인 다민족적 에스닉룩은 1997년 봄·여름 시즌 크리스찬 디오르의 컬렉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존 갈리아노와 장 폴 고티에까지 가세하여 도무지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독특한 패션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더 많은 도시의 컬렉션, 더 많은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다민족·다문화 스타일이 등장하여, 이것이 1999년의 패션현상을 특징짓게 되었다. 크리스찬 디오르의 컬렉션에는 중동 사막 지방의 고유복식, 아프리카 여인들의 목걸이, 중국의 전통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일본의 장신구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가 하면, 존 갈리아노의 작품에는 북아프리카 복식에 일본의 헤어스타일이, 장 폴 고티에 작품에는 스페인과 중남미 인디오 복식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또한 뉴욕 컬렉션에는 중국과 북미 인디언, 에스키모의 복식이, 도쿄 컬렉션에는 인도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아메리카 인디언, 카우보이 복식들이, 그리고 서울의 SFAA 컬렉션에는 중국 소수민족의 의복과 한국, 일본의 전통복식 등이 함께 혼합되어 나타났다.

17) T. Polhemus, 「Streetstyle」, N.Y.:Thamnes & Hudson Inc., (1997), pp.128-134.



<그림 9> 다민족 스타일-J. P. Gaultier
『Collection』, '98 S/S, Paris.



<그림 10> 소프트아방가르드룩-T. Nishida
『Tokyo Fashion』, '99 S/S, Tokyo.

이와 같이 지역적인 다양함 외에도 한 나라의 패션이라 할지라도 여러 시대의 요소들이 한데 어울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모즈, 히피, 펑크와 같은 하위문화 복식들도 자주 응용되어졌는데, 이 때의 하위문화복식들은 이미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스타일의 융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응용한 작품들은 더욱 다양한 시대문화적 혼성 양상을 띄게 되었다(그림 9).

2) 소프트 아방가르드룩

다른 지역의 패션현상이 혼합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또 다른 예는 1997년과 1998년에 나타난 소프트 아방가르드룩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본 전통의 구성법인 평면구성을 응용하여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준야 와타나베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이 1997년부터 발표한 스타일로, 얇은 소재를 봉제하지 않고 드레이핑과 휘감기, 접기, 묶기 등의 방법만을 사용하여 만든 의복 스타일을 말한다. 이 소프트 아방가르드룩이라는 용어는 그 형태와 방법은 전위적이지만 얇은 소재로 드레이프를 만들거나 휘감기 때문에 느낌은 아주 부드럽다는데서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이 의복들이 쉽게 실용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카스텔바작이나 발렌시아 등이 동양적 평면구성에 서양적 입체구성방법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의복을 재창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때 서양복의 구성방법 뿐 아

니라 서양 여러 나라의 복식요소가 함께 혼합된 벨룬 스커트, 어코디언 스커트 등이 발표되었고, 이것이 곧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즉, 199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소프트 아방가르드룩은 일본 전통 복식의 색채와 구성방법, 서양 복식의 스타일과 구성방법, 그 밖의 나라들의 헤어스타일과 장신구 등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패션 혼성화의 한 현상이라 하겠다(그림 10).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의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도쿄, 서울의 패션현상은 동일한 세계적인 트렌드 안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수한 형태는 서로 혼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현대의 패션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의 현상이 동일화되어 가는 동시에 자신의 문화만이 가지는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문화들과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도쿄, 서울의 세계 6대 컬렉션에 나타난 1990년대 후반의 패션현상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문화의 현상을 세계화로 보는 세계화론을 패션현상에 적용하여, 1995년부터 1999년

<표 1> 세계 6대 컬렉션의 패션현상 비교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도쿄	서울
1995	S/S	로맨티시즘 (솜 & 슬림)					
		글래머룩 롤리타룩	글래머룩 핑크룩	글래머룩 쉬크룩	글래머룩 에스닉룩	롤리타룩 그린지룩	글래머룩 롤리타룩
	F/W	로맨티시즘 (솜 & 슬림)					
		글래머룩 핑크룩	글래머룩 핑크룩	글래머룩 믹스매치룩	모즈룩 웨스턴룩	글래머룩 아방가르드룩	글래머룩 사이버룩
1996	S/S	미니멀리즘 (롱 & 슬림)					
		매니쉬룩 도요스트리트	스포티브룩 런던스트리트	스포티브룩	스포티브룩 밀리터리룩	스포티브룩 빅룩	글래머룩 모즈룩
	F/W	미니멀리즘 (롱 & 슬림)					
		밀리터리룩 에스닉룩	밀리터리룩 에스닉룩	밀리터리룩 스포티브룩	밀리터리룩 스포티브룩	밀리터리룩 스포티브룩	밀리터리룩 사이버룩
1997	S/S	로맨티시즘 + 미니멀리즘 (롱 & 슬림)					
		에스닉룩 에비타룩	에스닉룩	에스닉룩 쉬크룩	에스닉룩	에스닉룩 비대칭룩	에스닉룩 비대칭룩
	F/W	로맨티시즘 + 미니멀리즘 (롱 & 슬림)					
		에스닉룩 빅룩	에스닉룩 핑크룩	에스닉룩 빅룩	란제리룩 젠더리스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브리티쉬룩
1998	S/S	로맨티시즘 + 미니멀리즘 (롱 & 슬림)					
		에스닉룩 롤리타룩	에스닉룩 평면구성	에스닉룩 롤리타룩	에스닉룩 젠더리스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브리티쉬룩
	F/W	로맨티시즘 + 미니멀리즘 (롱 & 슬림)					
		에스닉룩 스포티브룩	에스닉룩 핑크룩	테크노룩 레이어드룩	젠스타일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1999	S/S	로맨티시즘 + 미니멀리즘 (롱 & 슬림)					
		에스닉룩 스포티브룩	스포티브룩 핑크룩	에스닉룩 스포티브룩	에스닉룩 스포티브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아방가르드룩 스포티브룩
	F/W	로맨티시즘 + 미니멀리즘 (롱 & 슬림)					
		에스닉룩	에스닉룩	에스닉룩	에스닉룩	에스닉룩 아방가르드룩	에스닉룩 밀리터리룩

까지의 파리·런던·밀라노·뉴욕·도쿄·서울의 컬렉션들에 나타난 패션 현상의 세계화 경향을 살펴 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계 6대 컬렉션에 나타난 가장 공통된 트렌드

는 로맨틱시즘과 미니멀리즘의 혼합이었으며, 구체적인 스타일로는 1995년의 글래머룩, 1996년의 밀리터리룩과 스포티브룩, 1997년의 비대칭룩과 에스닉룩, 1998년의 아방가르드룩, 1999년의 다민족적 에스닉룩 등을 들 수 있다. 색상

은 회색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소재는 비치는 소재, 광택 소재, 신축성 소재가 주로 이용되었다. 또한 지퍼, 후드, 드로우스트링과 자수, 스팅글, 비즈 등의 디테일이 많이 사용되었다.

2. 6개의 도시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각 도시가 지니는 역사적 배경 혹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프 꾸뛰르 취향의 파리 컬렉션, 전위적인 펑크 스타일의 런던 컬렉션, 쉬크한 이미지를 선명한 색상으로 표현한 밀라노 컬렉션, 실용성과 편안함을 강조한 뉴욕 컬렉션, 일본의 전통적 모티프와 스트리트 취향이 부각된 도쿄 컬렉션, 세계적인 트렌드를 한국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서울 컬렉션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6대 도시 컬렉션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의 작품에 세계 여러 지역과 시대의 모티프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다민족적인 스타일의 등장이다. 이 시기에 주로 이용된 지역적 요소로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들 수 있으며, 존 갈리아노와 장 폴 고티에 중심의 한정적이던 다민족적 특성이 1999년에 와서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만큼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1990년대 후반의 세계 6대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경향을 살펴 본 결과, 6개 도시의 컬렉션은 모든 시즌에서 동일한 트렌드를 보이는 반면,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각 도시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나아가 다른 여러 지역의 특성을 혼합한 새로운 양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세계 패션현상은 동일화·지역화·혼성화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세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패션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 패션 산업이 세계적인 패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 제시 및 방법의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대 도시 컬렉션이 현대 패션현상에서 차지하는 대표성, 이들이 속

한 대륙들의 넓은 지역적 분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세계적인 패션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우룡 (1991). 『뉴미디어 개론』, 서울: 나남.
- 박길성 외 (1996).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 박길성 (1996).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 한국산업사회학회 편 (1998). 『사회학』, 서울:한울아카데미.
- Aranson, J. (1990).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in M. Featherstone,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Sage.
- Humbert, M. (1993).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Europe's Firms and Industries』, Printer Pub.
- Polhemus, T. (1997). 『Streetstyle』, N.Y.: Thames & Hudson Inc.
- Robertson, R. (1994). "Globalisation or Glocalis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1(1).
- Pieterse, J. (1984). "Globalization as Hybridization", 『International Society』, 9(2).
- Boey, K. C. (1999). "Of 'globalization' and the east west power game", 『New Straits Times』, May 26.
- Berger, P. (1997). "Four faces of global culture", 『The National Interest』, No.49.
- "되돌아본 20세기 한국경제-IMF와 한국경제", 『조선일보』, 1999년 12월 27일.
- "세계 석유파동 위기", 『경향신문』, 1999년 11월 24일.
- "홍콩 차이나 시대 개막/영, 중국에 주권 반환", 『조선일보』, 1997년 7월 1일.
- 『Collection』
- 『Collezioni』
- 『Gap』
- 『한국판 Elle』
- 『한국판 Bazaar』
- <http://www.cfd.or.jp>, 『Tokyo Fashion』
- <http://www.fashion.net/7thOnline>, 『7th on 6th online』
- <http://www.firstview.com> 『Firstview』
- <http://www.widemediamedia.com/fashionuk>, 『fashion UK』